

강진군 “수국길 따라 ‘6월의 피크닉’ 떠나볼까?”

관행 깨고 보은산 V랜드에서 정례조회 개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되는 축제 홍보

강진군은 지난 22일, 6월 정례조회를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강진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매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해오던 정례조회 의 틀을 깨고,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개최되는 ‘수국길 축제’에 대한 홍보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그동안 군은 매일 정례조회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중 주요 계획과 당부 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사무실을 벗어나 보은산 V랜드 공원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는 야외 행사로 진행됐다. 강진원 군수가 직접 처음 열

리는 수국길축제에 대해 설명하고, 수국길 축제장을 둘러본 직원들은 축제 관련 아이디어나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말하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오후 3시 30분에 행사를 개최하여 미취학 아동이 있는 직원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행사장은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참여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군에서는 7월 2일까지 ‘SNS 공유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이 축제 현장 후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유하여 강진 수국길 축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사무실이 아닌 활력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수국도 보고, 음악도 들으며 직원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직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잘 검토하여 남은 기간 수국길 축제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이장 워크숍 개최

장흥군은 22일부터 23일까지 총남 천안 일원에서 ‘2023년 (사)전국이동장연합회 장흥군 지회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이장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이장 및 군수, 의장,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역의 리더로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어울림의 시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흥군은 역량강화 워크숍, 한마음대회, 상해단체보험 가입 등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 양성 공동참여마을 특색사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직접 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위성석 연합회장은 “마을과 고장에 대한 남다른 애郷심을 바탕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전남도 유일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 선정 일자리·주거·문화·교육·복지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높이 평가

완도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청년 친화 행정 대상’에서 전남도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행정 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상을 선정해 의미가 남다르다. 완도군은 2018년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완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청년 친화 행정 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전국 최대규모 연구단지 조성 삼산면 일원 60ha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과수연구소 및 군 농업연구단지 집적화

③ 약 60ha 전국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클러스터 조성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종합 구성도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 고구마 연구센터
- 종자산업기반구축
-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 과학영농실용시험단지
- 스마트팜 임대농장
- 유기농 복합 서비스단지
- 기후변화대응 체험 녹지
-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해남군이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서 삼산면 평활리 일원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메카로 조성한다. 군은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발맞춰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규모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는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25ha), 군 농업연구단지(30ha)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올해 토지 보상비와 기본 설계비를 확보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대응센터의 세부 역할과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본부로서 전국 도 단위 농업기술원을 지역센터로 활용해 기후와 밀접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을 하게 된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 설계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295억원 규모의 전라남도 과수연구소는 대지면적 25ha 부지 내 지상 2층 지역 특화과수 지원센터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온실, 노지실증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해남군에서 조성하는 농업연구단지에는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등 앞으로 해남의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이 구축된다. 지난해 9월 군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지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구성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다음달 입안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향상 캠페인 실시

진도군이 노조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향상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26일 김희수 진도군수와 간부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와 함께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경하고 투명한 진도군 실현을 다짐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공익신고제 안내문을 함께 배부, 반부패·청렴향상 캠페인을 추진했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과 청렴방송,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한 공직사회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도=조성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